

造景學科의 특성과 개선방향

金 龍 基
(成均館大 造景學科)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조경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1973년부터이다. 이후 9개 대학원, 23개 대학, 4개의 전문대학 등 36개 학교에서 연간 1,2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이들 졸업생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조경기술사 76명, 조경기사 1급 3,504명, 조경기사 2급 3,881명 등 모두 7,461명의 조경기술자가 建設業界, 設計用役業界, 政府投資機關, 教育機關, 기타 분야 등에서 활동중에 있다.

이처럼 조경분야는 2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눈부신 경제개발의 여파로 발생했던 환경파괴와 경관의 악화를 방지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 왔음은 조경교육의 영향이 지대하였음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1970년대의 고도성장기와 함께 출발한 조경교육은 급격한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가의 대량공급 등 양적 팽창에 치중한 느낌이 있었으나 2000년대의 복지사회 구현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추구,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의 악

화,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한 대처 등등의 사회적·국제적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질적 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조경학과 운영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조경의 학문적 특성과 조경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조경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造景學의 特性

근세 이전의 조경의 역사는 庭園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원은 왕이나 귀족과 같은 소수의 권력자를 위해 건축가나 화가들에 의해 건물이나 대지를 장식하는 庭園藝術로 발전되어 왔다. 조경학이 전문적인 학문으로 발달하게 된 것은 인구의 都市集中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로 大衆을 위한 公園의 조성이 필요하게 되어 1858년 미국의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가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설계하면서 조경가(landscape architect)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이처럼 조경학은 짧은 학문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발달과 함께 '小數를 위한 庭園藝

術'로부터 시작하여 '大衆을 위한 環境創造'로 변천하여 오늘날에는 쾌적한 屋外生活空間을 창조하여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문으로 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경학은 개발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분야의 다양성과, 과학과 예술의 종합성을 띠고 있는 것이 그 학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1) 專門分野의 多樣性

일반적으로 조경의 전문분야를 庭園이나 公園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공원이란 해도 시대의 변천에 대하여 또는 참가행태에 따른 정적인 것으로부터 동적인 것까지, 자연지향이 농후한 것에서 극히 희박한 것까지 그 폭은 매우 넓게 분화하고 있다. 한편, 이를 위한 공간도 私의 성격이 매우 강한 정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共同化·社會化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현재 조경에 관한 영역은 都市公園, 自然公園과 같은 메크리에이션 공간에 그치지 않고 都市地域, 農村地域을 불문하고 생활환경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고 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조경의 대상영역은 '인간이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관여하는 모든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해지고 있다.

2) 科學과 藝術의 綜合性

이와 같이 庭園을 하나의 원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점진적으로 혹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技能的 分化和 空間的 分化的 分化는 조경의 개념과 영역을 현저하게 확장시켜 왔다. 이것은 과거와 같이 정원적 틀 속에 묻혀 오로지 美의 小宇宙의 구축에 전념한 시대의 종식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여 현대의 조경이 어떠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든 "조경은 첫째로 藝術(fine art)"이라고 한 엘리엇의 말처럼 美의 追求 혹은 美的 關心의 측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조경이 좁은 정원적 틀을 벗어나 都市地域, 自然地域을 불문하고 인간 생활의 전반에 걸쳐 관제를 갖게 된 현대의 조경학을 Hackett가 지적한 바와 같이 '景觀에 있어서 경합하는 土地利用을 調和시키고 統一시키는 과학적 수법'인 것이다. 요컨대 인간환경의 쾌적성(ame-

nity)의 向上 改善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여 경관에 있어서 질서의 회복(rehabilitation, restoration), 형성(development), 보전(conservation)과 관련되는 일련의 用과 美가 결합한 綜合科學, 그것이 현대의 조경이라고 할 수 있다.

3. 教育課程

1) 現 況

조경학과의 교과과정은 조경학의 기초이론을 습득시켜 조경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많은 實習과 實技科目으로 짜여져 있으며, 여타 과목도 視聽覺教育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1학년 때에는 기초과목으로 조경학원론과 그래픽디자인 실습 등을 강의하여 조경에 대한 興味와 造形感覺을 익히는 데 주력하고, 2학년 때에는 제도와 조경수목, 정원설계 등을 통해 설계의 基礎的 能力을 배양하며, 3학년 때에는 조경사, 조경공학, 공원설계, 조경계획 등을 강의하여 設計能力의 向上을 꾀하고 있으며, 4학년 때에는 조경관리와 컴퓨터 설계 등을 통하여 조경실무분야와 밀접하게 접근하여 교과과정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卒業設計는 3, 4명이 한조를 편성하여 4년 동안 연마한 지식을 총동원한 設計作品으로 교내외에 展示하여 評價를 받음으로써 卒業資格이 주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조경학과 교육과정을 전임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안봉원, 1991)에 의하면 실무능력의 배양과 관련된 계획 및 설계와 시공, 관리에 관한 강과수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現場適應 能力의 배양을 강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음에 기초과목과 소재, 인문사회분야가 30% 정도 그리고 미학과 생태, 환경 및 기타 분야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뒤의 <표 1> 참조).

計劃과 設計分野는 조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조경설계, 정원계획 및 설계, 환경설계론 등의 과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施工管理分野는 식재시공, 조경시공, 시공관리, 조경구조, 조경

〈표 1〉 조경학과 교과목

분야별	과목명	강좌수	
기초 및 기법	조경학원론	13	
	디자인원론	3	
	계도	13	
	소묘	2	
	표현기법	6	
	조경전산기법	4	
	전산개론	1	
계	7	42	
소계	수목학	8	
	조경식물	8	
	지피식물	3	
	화분	3	
	소재론	6	
계	5	28	
미학	조경미학	12	
	형태 및 색채구성	3	
	조형예술미학	1	
	풍경화기법	1	
	계	4	17
계획 실계	공원계획 및 관리	1	
	공원녹지계획	11	
	조경계획	17	
	단지계획	4	
	정원계획 및 설계	7	
	조경설계	26	
	식재계획	1	
	자연환경계획	1	
	토지이용계획	3	
	주거단지설계	1	
	도시조경설계	1	
	환경설계론	6	
	관광 및 풍치계획	1	
	관광 레크리에이션 설계	1	
	레저계획 및 설계	4	
	관광조경시설	1	
	조경구성	4	
	계	17	93
	시공관리	시공관리	11
		조경식재관리	1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공학		4	
조경시공		12	
조경식재		13	
시공구조		8	
조경토목		3	
조경측량		6	

분야별	과목명	강좌수	
생태	조경경영관리	2	
	조경자산	3	
	계	11	64
	생태학	1	
	환경생태학	4	
	토양학	1	
	자연보호관리	1	
	녹지학	2	
	삼림식물분류학	1	
	입학개론	1	
	삼림생태학	1	
삼림보호학	1		
생물생태학	1		
계	10	14	
인문사회	환경학개론	1	
	환경공해론	1	
	도시환경론	1	
	환경공학	1	
	환경녹지론	2	
	환경분석론	1	
	자연환경분석	1	
계	7	8	
기타관련 분야	조경사	19	
	인간행태분석	1	
	한국정원론	1	
	조경해석론	3	
	환경심리행태론	2	
	행태분석론	2	
	인간과 환경	1	
	정원문화사	1	
	계	8	30
	건축학	2	
지역개발론	1		
도시계획	7		
관광자원관리	1		
관광 레크리에이션론	1		
계	5	12	
합계	9	74	

*출처 : 안봉원, "학교에서 본 산학협동과 조경교육", 『2000 년대를 향한 우리나라 조경교육의 현황』, 한국조경학회지 제18권 4호, 1991, pp. 145~148.

측량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人文社會分野에서는 조경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환경심리나 행태 등의 과목도 소수 운영되고 있다. 美

學分野는 조경미학과 형태 및 색채구성 과목이 있고, 生態分野는 환경생태학, 생태학, 녹지학 등의 과목이 있으며, 環境分野는 환경녹지론, 환경학개론 등이 개설되어 있다.

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경학과와 교육과목은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과목이 중복된 것도 많이 있으나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어서 그 종류가 70여 과목이나 되고 있다.

2) 敎科課程의 改善策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경교육과목은 조경전문 영역의 확대에 따라 매우 폭 넓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교육은 20여 개의 과목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데 반하여 조경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과목은 70여 개로 너무 많고 범위가 넓어 깊이 있는 교육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현행 조경분야의 졸업이수 학점은 專攻必須와 選擇科目을 합쳐 60여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이나 영국은 140 학점, 일본은 100 학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조경교육에 매우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겠으나, 이것은 學制的 問題와 대학교육의 교과과정 운영방향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획기적인 개선책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현실적 입장에서 각 학교마다 특색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專門性을 더욱 높여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졸업 후의 就業競爭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실 학과의 명칭도 造景學科, 環境綠地學科, 環境造景學科, 綠地造景學科 등 얼핏 다양하고 특색있는 것처럼 보이기 쉬우나 대부분이 조경학과와 교과과정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소속된 대학도 농과대학을 위시하여 이공대학, 산업대학, 자연과학대학, 문리과대학 등으로 달리하고 있어 소속대학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나 실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인접 학과인 園藝學科나 森林資源學科(林學科)에서도 조경학 관련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學間的

분야의 擴大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卒業生 就業의 경쟁상대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배출되는 조경학과 졸업생의 취업난 속에서도 업계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求人難이라는 모순에 빠져 있음을 감안할 때 어떠한 교육을 받은 인재를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가를 예측하여 어떠한 지식과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습득시킬 것인가에 대해 각 대학 나름대로의 특색있고 專門性 있는 교과과정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조경학은 다른 학문분야와 달리 매우 實質的이고 實用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現場에 대한 感覺과 實務能力이 요구되는 학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과정은 현장의 실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인력의 양성이라는 면에서는 다소 적응력이 미흡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교과과정에 한 때 실시한 적이 있었던 造景關聯 業體에 대한 現場實習의 義務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실사회의 조경관계 회사와 관공서,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실지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강의에 비해서 현장실무와 관계되는 실습이나 연습의 비중을 많이 두도록 하는 교과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學科 運營의 課題와 改善方向

1) 領域擴大와 敎育

앞으로 조경분야의 확대방향은 ① 환경보전·자연보호 분야, ② 도시계획·농촌계획·지역계획 분야, ③ 경관·풍치계획설계 분야, ④ 녹지식물·식재 분야, ⑤ 이들을 배경으로 한 역사·원론 분야 등으로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들은 관련된 다른 학문분야와의 境界領域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경분야만의 유일한 영역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와 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專門化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관련 영역 사람들과

의 共同研究를 활발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地球環境 時代와 教育

전세계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1992년 6월의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적으로 健全하고 持續可能한 開發(ESSD,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의 구현을 위한 인류의 노력을 절명한 바 있다. 이것은 오염 후의 정화처리인 환경공학적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生態的 自淨能力을 높이고 오염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경인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역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시키는 生態學的 接近方法에 대한 교육과, 정신적 성장과 창조적 수단으로의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情報化 時代의 教育

21세기가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조경분야에서도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자료의 처리와 관리는 물론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도면설계와 시뮬레이션 등의 기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인 표현과 공간에 대한 느낌, 인간의 행태 등에 대한 삼차원적·가상적 체험을 통해 계획·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이를 응용한 영상매체와의 접촉 등 그 영역은 급격하게 확장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조경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4) 國際化 時代와 教育

1992년 9월 제29차 世界造景家協會(IFLA) 총회가 서울과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조경분야도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市場開放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약한 국내 조경설계·시공 분야의 업체들은 외국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전망이다. 이것은 조경업계의 위축은 물론 결과적으로 조경학과 졸업생의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造景樹木 개발과 設計·施工技法을 개발하는 학계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국내 경쟁력의 향상은 물론 해외 진출의 무대 확장을 위해서도 국제화 감각을 익힌 인재를 육성·배출토록 해야 할 것이다.

5) 學科 運營의 特性化

조경학과의 전문영역은 정원과 같은 소규모에서부터 국토 전반에 걸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綜合學問으로서 조경학도가 습득하여야 할 학문적 범위 또한 넓고 다양하다고 한 것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다. 좁은 국토를 갖고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의 조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각 대학은 졸업생의 진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고민은 곧 닥쳐올 시장개방의 여파로 조경실무업계의 위축을 예상하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것은 대학마다 특색있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産學協同教育의 強化

조경학은 응용실천학문으로, 학교는 인재를 양성하여 업계에 공급하고 실무에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현장체험 없이 현장의 상황만 파악하는 수준에서의 학내실습교육은 졸업 후의 직업일선에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적어도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에게 경험많은 實務者의 강좌를 개설하여 실무에서의 대인관계, 시공방법, 관련법규의 검토 등에 관한 교육과 産業體의 現場實習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7) 資質을 갖춘 造景家 育成

대학의 조경교육이 보다 실천적인 것에 두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자격만을 갖춘 기술자의 육성에만 주력한다면, 조경학의 공공의 이익

에 어울리도록 경관을 창조하는 일을 망각한 조경가의 價値觀과 倫理觀의 타락을 초래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인간의 육체적 건강을 취급하는 것이 의사라고 한다면 육체에 필적하는 중요성을 가진 자연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자연이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치료하며, 나아가서는 건강을 잃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조경가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할 때, 의사가 사람을 치료할 때

의사의 윤리를 지켜야 하듯이 조경가도 인간과 자연에 대한 확고한 倫理觀을 가진 자질이 요구된다 하겠다.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구환경의 위기를 바로잡는 행동, 즉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유지라는 목적을 가장 잘 진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의심할 바 없이 그 임무에 훈련된, 사명감으로 가득찬 조경가들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投稿案內>

『大學教育』 제65호('93.9.1 발간)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내 용

- ① 대학교육에 관련된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제에 관한 논의, 각 학과의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해외 고등교육의 동향 소개,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으로 다음 칼럼에 해당하는 글
- ② 해당 칼럼 :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교수담론」

2. 분 량

- ①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 200자 원고지 45장 또는 55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시 7장 또는 8장(행길이 80, 행간 14로 하여 1장당 29행 기준)
- ② 「교수담론」 : 200자 원고지 20장 또는 25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실 경우 3장 또는 3장 반

3. 기 한 : 1993년 6월 10일

4. 고 료 : 200자 원고지 1장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제출처 : ① 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앞
- ② 전화 780-7942, 783-3891, 팩스 780-8311

6. 참고사항

- ①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논단」의 경우, 반드시 200자 내외의 요약문이나 발췌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국한문을 혼용하되 한자를 제한하고 필요한 때에는 원어를 써 주십시오.
- ④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